

보 도 설 명 자 료

(’22. 9. 14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정부는 대기업 충전 콜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
점점·개선해 나가겠음

(9.14일자 전자신문 「대기업 충전 콜센터, 휴일 ‘먹통’, ‘반쪽운영’
논란」 보도에 대한 설명)

1. 기사내용

- ☐ 주요 대기업 계열 완속-급속 충전 서비스 사업자의 콜센터가 추석 연휴 마지막날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
- ☐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콜센터 확대 운영을 요구하고 있으나 대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음

2.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

- ☐ 전기차 충전 콜센터는 원활한 충전기 사용, 신속한 고장 파악 등을 위해 전기차 충전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, 의무사항은 아님
- ☐ 다만, 정부는 국민 편의에 미치는 파급효과, 전기차 충전 인프라 보급·확산·운영 필요성 등을 고려 시,
 - 전기차 충전 콜센터가 **긴요한 역할**을 할 것으로 판단함
 - 향후, **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** 대기업 충전 콜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**점점·개선해** 나가겠음

※ 문의 : 신산업분산에너지과 문병철 과장(044-203-3920) / 장원 사무관(3923)